

국정혼란 와중에 확산된 AI

도, 총력대응 나서... 위기경보 최고 수준 '심각단계' 발령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상황에 따라 시설 폐쇄도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차단 방역 총력대응을 비롯이라도 하듯 걸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각적인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족방역심의회를 열고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사상 처음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과 조치도 더욱 강화됐다. 우선 전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가 설치되고 상황에 따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일시 폐쇄 조치도 시행된다. 가금,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농장 방문 조치도 30일까지 연장됐다. 축산농가 행사 또한 금지되고, 축산 관련단체장의 선

거도 연기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발생 1개월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1,6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며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지원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통제초소 전국 주요 도로 설치, 방역상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시설 잠정 폐쇄, 살처분 현장 인력 할당비리시제 부여,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신속 지원등 심각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지자체와 국회 차원의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충북 진천국을 찾아 방역 지원 활동에 손을 보태며 '휴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최악의 사태로 기록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겨울 철새에 의한 감염 이후 사람과 차량, 텃새 등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심각단계 발령에 앞서 지난 13일 고병원성 AI 발생 역학조사 중간상황을 발표했다. H5N6형 바이러스는 중국 북쪽 지역에서 감염된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 서해안 지역으로 유입됐으며, 이후 열린 지역에서 사람과 차량, 텃새 등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계란운반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해 계란 반출, 계란운반

기사의 방역복 미착용, 농장 내 계분장 소재, 농장 종사자가 계란 상차 병행 등의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 발생 농장의 축사가 노후됐고, 농장 경계가 불분명하며 출입차단 표시가 없는 사례도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지난일 관계부처, 지자체 영상회의를 갖고 기계적인 L-전파로 고병원성 AI가 퍼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수 장관은 "방역은 단시간 내 원인을 제거하는게 중요하므로 살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신속성 있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에서도 방역조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실히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도 정읍에서 AI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해 모든 부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및 지시사항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재용 기자

고개속인 최순실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회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 요청할 것” ▶ 관련기사 3면

“낙후 탈피 위해 새만금 복합리조트 필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법안 통과 위해 안중범 만났으나 최순실 개입과는 무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9일 김관영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리조트 관련 된 입장을 다시금 언급하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과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수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발의를 부탁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의 경제발전과 지지부진한 새만금추진을 위한다고 결정한 일이 이렇게 지역에서 무분별하고 악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

따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준비를 해왔었다고 밝힌 뒤 당시 같은 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춘석, 이상직 등)과 상의를 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비롯해 국제회의장, 소공연장, 박물관, 호텔, 놀이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허용이 담겨져 있다”며 “카지노 국회의원이란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만큼 카지노 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꼭 필요했기에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 카지노로 인해 격정이 많은데, 카지노 시설은 복합리조트의 3%에 불과하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도 한층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리조트를 건설하고 열기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린다”며 “정부가 허가를 내준다면 국제공항과 크루즈 항만, 도로철도 등 새만금 인프라도 갖춰질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0년 도교유림박을 맞아 해외 관광객을 늘리기위해 카지노리조트 허용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면서 “복합리조트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관광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통과를 위해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만나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것을 가지고 최순실 개입이니, 청와대 요청이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표한 이른바 '새만금복합리조트'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빠르면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군산 롯데아웃렛 건축 행정절차 완료

롯데쇼핑(주)이 군산롯데아웃렛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군산 롯데아웃렛 기존 건축면적 가운데 상업면적을 줄이고 도로 차선을 넓히는 차로 추가확보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에 따라 롯데아웃렛 건립 예정 건축물 4면 가운데 동군산병원방면 4차선 도로(완충녹지)는 기존 계획 7차선 도로에서 9차선으로 2개 차선이 늘어났다. 제1고 방형인 도로(광장)는 당초 계획 6차선에서 7차선으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인근과 접하는 신규도로는 기존계획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총 3개 방면 도로에 대한 차선 증액이 이뤄졌다. 확충된 도로는 모두 군산시로 기부채납되며, 이같은 차로 추가 확보안은 건축허가 승인 가운데 조건부로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로써 롯데쇼핑(주)이 제출한 군산 롯데아웃렛 건립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 조건은 모두 완료됐으며, 다만 영업 허가를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만 남은 상황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강소기업들, 익산 일반산업단지 투자 줄이어

시, 엔씨·비엔디네트웍스와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가 시정 최우선 정책인 '산업활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외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익산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 회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엔씨(대표이사 탁선정)와 (주)비엔디네트웍스(대표이사 김영)의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엔씨는 익산시 제3산업단지의 1만6,171㎡ 부지에 2020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주)비엔디네트웍스 역시 제3산업단지의 6,600㎡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가 완료될 경우 30여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구직을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엔씨는 신설법인으로서 황등면에 소재한 모회사 격인 (주)대성메디칼의 사세확장과 수주물량 증가에 따라 탈지면, 표백면 등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대성메디칼은 국내 최초로 '알콜솜'을 개발한 업체로 화장품, 탈지면, 알콜솜을 화장품 회사와 의료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이번 (주)엔씨의 산업단지 투자가 완료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비엔디네트웍스는 시공능력면에서 획기적인 국내최초 '액형 광촉매 제품'과 기술력으로 광촉매 제조에 관한 특허 등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기반(원광대 창업보육센터) 첨단 신기술 벤처기업이다. 광촉매(이산화티타늄, TiO2)는 아스팔트, 건물외벽 등에 도포하면 태양광과 반응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화시켜주는 친환경 소재로 이번에 신설될 익산공장에서 일일 10톤 규모의 촉매제를 생산하여 매출증대와 사업 확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영환 기자

▶ 매일 INDEX
2면 새만금 개발 '탄력도' 16면 올 한해 전북도의회 의결 결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세계희귀절지동물 특별전

2016 겨울방학 특별기획

2016년 12월 24일(토) ~ 1월 22일(일) *월요일 휴관

장소: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 (063) 620-5751~5754